

# 청년거점공간 '청년이음전주' 개소

### 시, 개소식 갖고 청년강사 초청강연·청년희망토크·취업역량강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용 활동 공간이자 청년정책지원 거점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지원과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전주지역 청년들의 지역거점공간이 될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1길 31-5)'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청년문화예술인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개소식에서는 청년센터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 안내, 제막식, 박세상 청년강사의 초청강연 등이 진행됐다.

전주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크업 △강점검사 상담소도 운영됐으며,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일일카페와 홍보부스, 청년희망토크, 정책선호조사 등도 진행됐다.

청년이음전주는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소



전주시는 지난 3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지원과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전주지역 청년들의 지역거점공간이 될 '청년이음전주' 개소식을 가졌다.

통공간 △개인학습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 총 328㎡ 규모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청년이음전주는 전주에 거주하거나 전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시는 9월부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클래스 △창작동아리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 아들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전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청년온라인 플랫폼(youth.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8-867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 전주시보건소, 13일부터 '스카이코비원' 백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향상을 위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2차 기초접종용으로 활용되며,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은 4주다.

사전예약은 9월 1일 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2개소에서 실시한다.

빠른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

1개소(전주병원, 중화산동2가)를 지정하고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우선으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형성 확대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56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2차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재 3차·4차 접종을 진행 중이다. /김재훈 기자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1일 전주시민과 자원봉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제2회 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 '전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50만원으로 상향

### 시, 추석 명절 소비 진작 위해 30만원 증액

전주시가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폐지카드)의 구매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폐지카드의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기존 120만 원

에서 3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폐지카드의 월 발행한도 200여 원을 일시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됐던 월 구매한도도 오는 11월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미 폐지카드를 구매한 도까지 전액 충전해 사용한 시민은 30만 원 추가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1월까지 최대 150만 원 충전이 가능하다.

폐지카드의 기존 캐시백 10%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간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발행 잔액을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선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인 폐지카드는 모바일 앱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전주형 일자리 상생포럼' 개최

### 성공사례 공유·계획 논의... 10월 산업부 지정 신청 예정

전주시가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협을 기반으로 탄소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형 상생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참여기업, 관련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31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노사발전재단, 전북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 자문 교수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형 일자리 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시와 노사발전재단,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은 전북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산업부 지정 신청에 앞서 기존에 추진된 타 지역 사

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양숙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과 채연주 전북대학교 교수가 각각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전주형일자리 상생 및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정된 군산형 일자리(군산대 김현철 교수)와 밀양형 일자리(경남연구원 김유현 박사)의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이경화 캠퍼스융합기술



원 본부장의 진행으로 전주형일자리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준비위 회의가 열리는 등 전북 전주형일자리 산업부 지정 신청을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

시는 이날 상생포럼을 토대로 향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점검한 후 오는 10월 산업부에 전북 전주형일자리 지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김종성 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산업부 지정 신청이 임박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해 2023년 초에 전북 전주형 일자리가 산업부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자원봉사센터, 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 실시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31일 전주시민과 자원봉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제2회 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안녕한 전주 만들기 프로그램인 '2022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ESG 트렌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 초청된 전현숙 자원봉사사이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단열시공, 태양광 설치, LED 조명 교체) △식습관 개선(채식위주 식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순환(플라스틱 포장재 및 재활용을 높이기) △나무심기(도시숲, 도시농업) 등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위원인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가 '감염병 재난대응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교육을 이어갔다.

황의욱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정책에 맞춰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자원봉사 전문가들의 소중한 경험과 식견을 모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자원봉사센터는 환경교육 외에도 △'안녕! 한 번 더 보냉, 아이스팩 보내기' 환경캠페인(아이스팩 재활용) △전주시 '플라스틱 봉사자 방앗간' 운영(병뚜껑 재활용) 등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